

# 구청질문에 대한 답변서

【복지정책과장 : 여한구 / 희망복지팀장 : 손은화 / 주무관 : 사회 7급 이현일】

연락처(☎) : 2600-6711

## 박성호 의원 구정질문 내용

(3) □ 강서구의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청장의 정책기조

○ 고독사 방지를 위해 어떤 정책을 개발할 것인지?

- 우리 구의 세대당 인구수는 2.06명으로 서울시 평균인 2.3명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고독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기존의 고독사 방지 정책은 고독사 발생 이후 조기 발견 등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고독한 상태 놓인 구민을 다른 구민과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관계를 형성하는 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함

□답변내용 ----- (복지정책과)

-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부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사회적 고립 심화 등 1인 가구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비율 등이 높아질수록 고독사 위험도도 커지기에 우리 부서에서는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선제적·상시적 발굴 조사
  - 고독사 예방 대책에서 위험군 ‘발굴’은 기본 전제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적 고립 1인가구의 안부확인 서비스를 일제 점검하고, 매년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연간 모니터링, 주민·민간기관 협업을 통해 일상 속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강서형 위기가구 생활안전 협업 체계 강화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강서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안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위기가구 발굴·지원과 취약계층 사고 관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내 주민 돌봄·연결 강화
  - 우리동네돌봄단 연중 운영을 통해 돌봄을 내실화 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구축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주민 인적안전망(동 희망드림단, 우리동네 돌봄단,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의 구성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발견하고 주변의 이웃을 살피는 등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주민 네트워크 형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안부확인 강화
  - 사물 인터넷을 기반한 IoT사업과 조도, 전력량 사용으로 위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플러그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구만의 특화사업인 강서이음콜을 확대 운영하여 안부확인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 아울러, 주민과 자주 만나는 생활업종 종사자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교육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놓인 구민을 지역사회와 적극 연계하여 고독사 없는 강서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끝.